

재일 한인 잡지소재 ‘김지하 담론’의 정치적 의미*

- 『삼천리』를 중심으로 -

안 정 화**

차 례

I. 들어가기

II. 『삼천리』의 정치적 성격

III. 왜 김지하인가?

IV. 『삼천리』와 김지하 담론의 상징성

V. 맺음말

I. 들어가기

1975년 <봄>호를 처음으로 창간된 재일 한인 종합문예지 『삼천리』의 첫 특집 기사는 한국의 詩人 김지하에 대한 것이었다. 『삼천리』가 차지했던 재일 한인 종합문예지의 위치와 역할¹⁾을 생각해 본다면 창간호 특집으로 김지하 기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HS0013)

**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 재일 한인 사회가 발간한 잡지와 그 명칭, 역할 등은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활동에 있어 그 의미가 있으나, 특히 『삼천리』의 경우는 종합문예지로서 높은 수준의 글과 다양한 내용의 구성으로 일본 종합문예지와 견주어 손색없을 정도의 것이

사가 선택되었던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창간호에 실린 김지하 관련 담론은 김지하의 詩 석양이야기와 황토의 평론, 그리고 김지하의 저항과 그를 구하는 모임의 의미에 이르는 것이었다. 『삼천리』가 김지하를 머릿기사로 다룬 것은 정치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배제한다는 잡지의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었지만, 또한 역으로 김지하라는 한국의 젊은 詩人을 통해 조국의 정치현실을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방법이기도 했을 것이다. 창간호를 필두로 『삼천리』는 김지하와 관련된 많은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특정 주제나 사건이 아닌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 여기서 『삼천리』가 가지는 김지하 관련 담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재일한인의 중심적인 종합 문예잡지 『삼천리』가 김지하를 택하였는지, 또 김지하 관련 담론이 재일 한인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김지하가 가지는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재일 한인이라는 민중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따져봄으로써 『삼천리』속 김지하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한국에서 시인 김지하가 가지는 의미와는 또 다른 무게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민주화

었다. 대부분의 재일 한인들이 발간한 잡지가 연속되지 못하고, 1,2권에서 끝나거나, 갈수록 내용과 구성이 조잡해져 간 것에 비하여 『삼천리』는 탄탄한 재정적 받침과 훌륭한 집필진을 바탕으로 1987년 50호를 중간호로 끝맺을 만큼 그 위치와 역할은 남다른 것이었다. 정치적인 기사를 배제하며 한일 양국의 가교가 되어, 통일에 기여한다는 『삼천리』의 의지는 중간호까지 일관되었고 많은 재일 한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잡지였다.

- 2) 『삼천리』의 김지하 관련 중심기사는 (물론 글의 내용 속에 김지하 관련 내용이 잠깐씩 들어간 것까지 들자면 훨씬 많을 것이다.) 창간호에서 시작하여 79년 가을호까지 대략 20편이 넘는 글들이 소개되었다. 그 중 주된 글들을 들자면 위에서 소개한 창간호의 글들을 제외하고 75년 가을호의 大江健三郎 「김지하·사르트르·메이러」, 前田康博 「서울 보고 김지하씨의 호소」, 75년 겨울호 김석범 「김지하 양심선언을 읽고」, 76년 가을호 眞繼伸彦 「어느 한국인의 메시지」, 76년 겨울호 정경모 「한국 민주화 운동의 이념」, 77년 여름호 강재인 「김지하의 사상을 생각하다」, 吉留路樹 「일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77년 가을호 針生一郎 「미완의 여로 - 김지하와 로터스상」, 78년 가을호 中井稔榮 「김지하에 있어 민중」, 79년 봄호 円谷眞護 「김지하에 관한 노트」, 79년 가을호 김학현 「빛은 옥중에서 · 김지하의 사상」, 백낙청 「분단시대의 문학사상」 등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격렬하였던 시기에 그 큰 줄기로서 김지하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 통일의 역군으로서 김지하의 시와 평론들이 뽑어낸 기운은 한국 민중들의 한과 더불어 시대의 큰 즐거움을 이루었고, 한국문학과 사상 속에 깊은 발자국을 새겼다. 또한 그만큼 한국에서 김지하의 사상과 문학이 연구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재일 한인 사회가 받아들이는 김지하의 시와 사상이 한국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이라는 테두리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떠날 수도 없는 재일 한인들이 느끼는 조국과 그에 대한 정체성은 다양하고 미묘한 것이다. 그들이 한국의 정치현실과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김지하라는 창을 통해 보는 것은 어찌하면 재일 한인 사회가 조국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표출하고 싶은 것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은 잡지 『삼천리』를 중심으로 씌어진 김지하 관련 담론을 소재로 하여 재일 한인사회의 조국에 대한 생각과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 김지하인가라는 소박한 질문에서 시대적 상황과 그가 가지는 무게와 상징이 한인 사회에 미친 영향, 재일 한인의 민중의식 등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재조명 해 보고자 한다.

II. 『삼천리』의 정치적 성격

『삼천리』는 재일 한인 사회의 일본어 계간 잡지(문화종합지)로서 1975년 봄호를 시작으로 출간되었다. 잡지의 편집인은 재일 사학자인 이진희³⁾가 맡았으며, 발행인은 이철, 편집위원은 김달수⁴⁾, 윤학준, 강재연⁵⁾, 박경식, 김석범⁶⁾ 등

3) 재일 사학자, 1929년 경남 김해 출생. 메이지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해방 이후 일본에서 풍미하던 식민사관에 의거한 왜곡된 한국사 인식을 정면에서 반박하였다. 특히 광개토태왕릉비 해석을 둘러싼 일련의 연구업적은 일본 사학계에서 학문적 대상이 되지 못한 조선 고고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다. 계간 『삼천리』의 편집장 역임. (출처 : 『해협』 저자 소개)

4) 일제강점기 피압박 민족의 서러움과 고통을 소설로 그린 대표적인 재일교포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조국과 민족의 독립,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존재방식을 묘사하여 식민지 지배의 억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슬픔과 증오를 유려한 필체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 《현해탄》 《박달(朴達)의 재

이었다. 편집인과 편집위원이 모두 문필가 또는 사학자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잡지의 성격과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것이 짐작된다. 『삼천리』는 1987년 50호로 종간을 맞았는데, 그것은 잡지의 성격상 제 역할을 모두 다 했다는 편집부의 판단 아래에 내린 결정이었다. 대부분의 많은 재일 한인 사회의 잡지들이 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 ‘중간’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호지부지 사라진 것에 비교하면 『삼천리』가 50호까지 발행되면서 제 역할을 다 한 후 막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잡지들과 비교해 상당히 대조적이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창간에서 종간까지 처음의 편집 방향과 원칙을 지켜 높은 수준의 글로 재일 한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잠깐 『삼천리』의 편집 방향을 살펴보면,

하나,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에 따라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추구할 것

둘, 일본인의 한국관을 올바르게 세우고, 일본과 조선의 마음의 ‘가교’를 지향하여 주로 근대 백년의 문제를 다룰 것

셋, 지면은 계몽 잡지가 아니라, 일본의 매스컴과 당당히 논쟁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할 것

넷, 잡지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편집에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 것

다섯, 일본인 집필자에게 지면을 될 수록 많이 할애할 것

여섯, 원고료는 『思想』(이와나미 서점)수준으로 책정할 것

관》 《후예의 거리》 등 소설과 고대 한일관계를 조명한 《일본 속의 조선문화》(12권) 등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검색)

- 5) 재일 사학자, 1926년 제주도에서 태어남. 교토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조선조 유교(사상사 체계를 세움)에 대한 연구에 큰 공을 세웠다. 계간 『삼천리』와 『청구』의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출처 : 『한일교류사』 저자 소개)
- 6) 1925년 오사카 출생. 어머니가 오사카로 온 지 3~4개월만에 태어난다. 대표적인 재일한인 작가로 장편 『화산도』는 그의 필생의 역작이다. 김석범은 『화산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주 4·3을 줄곧 작품에서 다루어 왔다. 『까마귀의 죽음』, 『관덕정』, 『만덕유령기담』 등이 제주 4·3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외에도 『在日の思想』, 『民族, ことば, 文學』, 『ことばの呪縛』 등 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으며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이다.

일곱, '친목회'수준의 원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여덟, 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아홉, 광고는 추천할 수 있는 서적으로 제한할 것

등7)이었다. 이러한 편집 방향과 원칙에 의해 『삼천리』는 재일 한인 잡지로서는 드물게 일본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장수한 문예종합지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아래에 창간사의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좀 더 자세한 『삼천리』의 성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창간사>

조선을 가리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산하의 조선이라는 의미이다. 잡지 『계간 삼천리』에는 조선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기본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1972년의 「7·4남북성명」에 따라 「통일된 조선」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一衣帶水の 관계에 있으면서도 조선과 일본은 아직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는 관계인 것이다. 우리는 조선과 일본의 복잡하고 뒤엉킨 관계의 실마리를 풀고 상호간의 이해와 연대를 꾀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재일동포 문학과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갈 것이다. 또한 일본의 많은 문학과 연구자들과의 관계 또한 공고히 다져나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독자의 의견을 중시하여 그를 본지에 반영시킬 작정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앞날에는 많은 어려움이 닥쳐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넘어 우리는 우리의 염원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⁸⁾.

남북의 대화를 위해 재일교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창간된 『삼천리』는 조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풀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듯 하다. 또한 자급에 연연하지 않고 문화사업을 한다는 자부심과 잡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인다. 실제로 『삼천리』를 살펴보면 수준 높은 기사거리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에서 잡지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재일 한인 사회라는 특수한 집단이 편집, 발행하는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민단⁹⁾과 총련¹⁰⁾이라는 두 정치·사상

7) 이진희 저, 이규수윤김 『해협』(삼인, 2003) 203쪽 참조

8) 『삼천리』 1975.2.1 창간호 창간사

집단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 점, 잡지의 광고를 최대한 줄여 상업적 잡지이면서도 깨끗한 잡지라는 인상을 심은 점, 계몽적이거나 감정적인 글을 배제한 점, 공정하면서도 '내쇼날리즘'의 틀을 타파하고자 하는 글을 엄선해서 실었던 점 등이 눈에 띈다.

『삼천리』는 주요 내용으로 일본과 조선의 관계, 조선 근·현대사, 조선의 문화, 고대일본과 조선의 관계사, 재일 조선인등 폭넓은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架橋>라는 수필을 주로 한 코너를 두어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글들을 실어 한일 양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쉽고 부드럽게 재일 한인 사회의 모습을 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코너를 통해 재일 한인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참여하여,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양식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삼천리』의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아진다. 그 첫째는 『삼천리』가 남, 북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립된 입장을 지켜나감으로써 재일 한인 사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표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던 재일 한인 사회를 하나로 아울러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더불어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음으로써 독자적인 재일 한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는 끊임없이 일본인의 눈을 뜨게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보려는 노력으로 인해 일본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피해자와 가해자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일 양국인 만큼 『삼천리』의 시대를 앞서간 노력은 의미 깊은 것이라 하겠다. 일례로 『삼천리』는 NHK의 조선어 강좌 개설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그 결실을 보았다. 민간차원의 사회교류, 문화교류, 언어

-
- 9) 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을 약칭하여 거류민단(居留民團) 또는 민단(民團)이라고도 한다. 1946년 10월 3일 광복 직후의 좌우대립 과정에서 우익이 연합해 결성한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이 그 모체이다.
- 10) 별칭하여 조총련(朝總聯)이라고도 한다. 1955년 5월 한덕수(韓德銖)의 주도로 결성되어 도쿄[東京]의 지요다구[千代田區]에 중앙본부를 두고 지역별로 지방본부와 지부·분회 등이 조직되었다. 그 산하에 청년동맹·여성동맹·교직원동맹·과학자협회·상공연합회 등의 계층별 단일단체를 두고 있다.

교류의 시발점이 되는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재일 조선인의 문제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킨 점이다. 재일조선인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한, 일본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삼천리』의 이러한 성격과 내용으로 인해, 편집부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룸에 있어 많은 조심을 하였다. 정부나 정권이 소재가 되는 글은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인 집필자를 쓰려고 한 점이나, 재일 한인이 글을 쓰더라도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깊이 들여다보면 눈에 띈다. 『삼천리』가 왜 김지하를 즐겨 다루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보기로 한다.

Ⅲ. 왜 김지하인가?

먼저 『삼천리』가 김지하 담론을 주요 소재로 다룬 것에 대해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과 주변 정세 그리고 『삼천리』가 속해 있던 일본의 사회 모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당시의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련·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평화공존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정세변화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한층 더 분명하게 '두 개의 한국'을 고착화하고, '한·미·일 3각 안보체제'¹¹⁾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¹²⁾ 만들었다. 이에 한반도의 두 분단국가는 이 같은 강대국들의 분단고착화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문제의 민족주의적 해결을 촉구하는 계기

11) 한·미·일 3각 안보체제 : 미국을 삼각형의 정점으로 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양변으로 하며 한일관계를 밑변으로 하는 군사동맹체제.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 통합 전략.(출처: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창비, 2005))

12)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창비, 2005) 300~302쪽 참조

를 만들게 된다. 적십자회담으로 협상의 길을 연 남북 당국은 정치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추진한 결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1972.7.4) 민족분단 후 남북 정부가 합의 발표한 최초의 공동성명인 ‘7·4 남북공동성명’은 비록 쌍방 집권자들간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통일문제의 원칙에 대한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민족통일운동사상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였다.¹³⁾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삼천리』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시점에서 창간이 기획되었다. 재일 한인 사회가 7·4남북공동성명에 건 기대는 남·북한의 민중들만큼이나 큰 것이었다.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던 재일 한인 사회가 하나의 조국을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일 한인 사회의 이러한 깊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정권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달았다. 박정희정권은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유신’을 선포했고(10.17), 김일성정권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10.27) 사회주의체제 지향을 한층 더 선명히 하고 1인 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¹⁴⁾ 3선 개헌과 유신 체제로 20년에 가까운 군사독재체제를 확립한 박정희정권은 장기 집권에 따른 일부 권력의 부패와 타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남북의 상황을 지켜보던 재일 한인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한 김지하를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발표한 김지하의 담시 「오적」은 박정희정권과 민주세력 간에 목숨을 건 대투쟁의 발화점이자 철권통치에 저항하는 실천정신의 상징이었다. 「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차관, 장성 등 당대의 지배계층을 장악하고 있던 주류들의 타락과 부패상을 통렬하게 풍자한 작품이다. 이 시는 유신에 반대하는 반체제 전선 최초의 불꽃이었다. 이 시로 인해 김지하는 반공법 위반으로 1970년 6월 20일에 구속됐다가 9월8일에 보석으로 석방되는데 이는 박정희가 군 내부의 친위 쿠데타로 쓰러질 때까지 장장 20여년에 걸쳐 계속된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 투쟁의 서곡이었다.¹⁵⁾ 이후 김

13)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창비, 2005) 301~302쪽 참조.

14) 위 책, 306 쪽 참조.

15) 유시춘 외, 『우리 강물이 되어』(경향신문사, 2005) 44쪽.

지하는 박정희 군사독재의 폭압에 날카로운 글로 저항하다 결국 1974년 흑산도에서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소위 민청학련 사건¹⁶⁾과 관련한 배후조종 및 내란선동 혐의가 그를 사형이란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게 하였고, 그 사실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당시 재일 한인사회에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김지하가 다가 왔을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정치, 교육, 출판, 언론, 종교, 예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식인 운동을 격발시킨 그의 시, 민예와 저항정신은 그 때까지 지속되던 문화적 패러다임 전체에 충격을 줄 만큼 매혹적이었으며, 동시에 강한 미학적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었다. 김지하의 순결한 분노와 실천은 미학적으로 민예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것이면서 동시에 근대의 친박한 물질화를 구원하는 역동성과 새로움을 지니는 것이어서 전염성 또한 매우 강했다.¹⁷⁾

『타는 목마름』(1982, 창작과 비평사)이라는 시집에 실린 시들을 잠시만 훑어 보아도 그의 당시 문학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쉬울 듯 하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61년에서 75년 사이에 씌어졌거나 발표된 것으로 김지하의 민주투쟁이 가장 힘들고 격렬하였던 시기의 작품들이다. 특히, 대표작품으로 세인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타는 목마름』은 '그대=민주주의'를 상실감 속에 애타게 부르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시이다.

16) 민청학련 사건 : 검찰의 강압조사로 “민청학련은 평소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이철, 유인태 등이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시키고, 과도적 통치기구를 만든 후, 궁극적으로 공산군가를 건설키 위해 전국 6개 도시의 24개 대학과 10여개 고등학교를 총망라하여 조직한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단일 사건으로는 해방 이후 사상 최고인 1204명이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중 180여명이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민청학련이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단지 자유민주주의제도의 회복을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평화시위를 계획했을 뿐, 국가변란이나 공산혁명, 무력혁명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앙정보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등 가혹한 육체적 압박을 통하여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찰관이 구치소까지 찾아와 구타, 고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서가 작성되었다.(출처 : 유시춘 외, 『우리 강물이 되어』(경향신문사, 2005)

17) 유시춘 외, 『우리 강물이 되어』(경향신문사, 2005) 45~47쪽 참조.

많은 김지하의 시는 민본주의적 유산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민족, 민중적 세계관을 그 사상의 추(錘)로 하고 있다. 그는 『황토』의 후기에서 현실 비판은 당연한 것이며 '사랑의 상실, 대상에 대한 무관심, 그에 대한 권태는 바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중이 사는 곳, 민중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해야 할일에 대한 순수한 비판과 관심이 바로 김지하의 열정이 되었을 것이고, 민중의 깊은 마음을 울렸던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김지하를 『삼천리』가 주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삼천리』의 편집부는 잡지가 정치적이면서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 딜레마를 갖고 있었다. 조국의 현실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재일 한인 사회는 그 피바람 속으로 당당히 맞서 들어갈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재일 한인들이 아무리 조국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조국의 땅에 발을 딛고 조국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쉬는 한국인은 아니었다. 재일 한인들에게 그들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 일차적인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은 중심에 있을 수 없지만 중심을 살펴 볼 수 있는 어떤 축을 필요로 하였고, 『삼천리』는 그 축 속에 김지하를 포함시켰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독재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김지하의 모습은 더없이 활력적이었을 것이며, 또한 그가 정치가나 정부의 주요인사가 아니라 청년 시인이라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매력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구속되고 사형을 구형받는 정권에 대한 비판은 사회문화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얼마든지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꺼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천리』가 김지하를 통해 본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삼천리』와 김지하 담론의 상징성

『삼천리』속에 나타난 김지하 담론은 대체로 몇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첫째가 한·일 양국의 관계를 김지하 또는 한국·일본의 민주화운동의 상황을 통해 거론하고 있는 것이고(이 경우, 대체로 일본 정부와 박정희정권의 경제교

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김지하와 민중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상가로서 김지하가 가지고 있는 민중의 힘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그에 따라 민중의 힘이 커지기를 바라는 내용이라 하겠다. 셋째는 남북통일의 염원을 김지하의 사상을 기반으로 좀 더 앞당겨 보고자 하는 글이다. 그의 사상과 종교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글이 많으나 재일 한인 사회가 원하는 무엇보다 큰 부분이 아닐까 싶다.

『삼천리』는 김지하 관련 담론을 실으면서 한국의 박정희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중,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에 이르기까지 『삼천리』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반정권'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 민중들과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재일 민중들이 가진 또 한 가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재일 한인 사회는 한국인이면서도 그렇지 않고,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도 일본인이 아닌, 특수한 사회이다. 디아스포라적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속성은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여 정체성의 확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힘든 점과 함께 그 대상이 되는 양쪽 사회 모두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천리』의 글에서 '반정권'적인 성격이 짙게 느껴지는 것도 디아스포라 집단의 장점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보인다. 당시, 한국 사회는 박정희정권의 철통같은 '군사독재체제의 강화'로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혹은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만 하는 암흑의 시대였다. 물론, 1인 독재체제의 강화로 한국은 경제적 성장을 거듭하였지만, 그것이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은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중, 통일을 외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삼천리』는 한국 민중의 상황을 직시하였기에 오히려 더 김지하를 받아들임으로써 '반정권'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은 아닐까. 한국의 민중을 대신하여 박정희정권을 비판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인도함으로써 『삼천리』는 디아스포라적인 사회의 장점을 보이며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의 표를 통해 김지하 관련 담론이 보이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호수	년도	작가	제목	분류
1	창간호(봄)	1975	쯔루미 슌스케. 김달수	대담, 격동이 낳은 것	민중, 민주주의, 한일관계
2	창간호(봄)	1975	난보 요시미치	김지하의 저항	문학정신
3	창간호(봄)	1975	오카베 이즈코	우리의 의식	한일관계
4	창간호(봄)	1975	마즈키 노부히코	천국과 지옥	한일관계
5	창간호(봄)	1975	김지하	석양이야기	시
6	창간호(봄)	1975	무라마츠 다케시	황토의 김지하	문학평론
7	창간호(봄)	1975	와타 하루키	김지하를 구하는 모임의 의미	민주화운동
8	3호(가을)	1975	오에 겐자부로	김지하·사르트르·메이러	사상
9	3호(가을)	1975	마에다 야스히로	김지하씨의 호소	한국의 정세
10	4호(겨울)	1975	김석범	김지하 양심선언을 읽고	통일, 한국의 정세
11	5호(봄)	1976	마에다 야스히로	겨울의 시대 '서울'	한국의 정세
12	6호(여름)	1976	히타카 로쿠로, 김달수	대담 체제와 시민운동	한일관계, 한국의 정세
13	6호(여름)	1976	김정주	박정권의 15년	한국의 정세
14	6호(여름)	1976	자료	김지하어머니의 호소	기타
15	7호(가을)	1976	마즈키 노부히코	어느 한국인의 메세지	한일관계, 통일, 문화
16	8호(겨울)	1976	정경모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	한일관계, 민주주의
17	8호(겨울)	1976	K·I	전쟁과 평화- 흔들리는 서울	한국의 정세
18	8호(겨울)	1976	요시마츠 시게루	재일 한국인 "정치범"의 구원을	한국의 정세, 민주주의
19	10호(여름)	1977	강재언	김지하의 사상을 생각한다.	문학평론, 민중
20	10호(여름)	1977	나카이 마리에	김지하에 대해	문학평론
21	10호(여름)	1977	K·I	격자없는 감옥에서의 저항	한국의 정세
22	10호(여름)	1977	요시토메 로쥬	일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민중, 한일관계
23	11호(가을)	1977	하류 이치로	미완의 여로- 김지하와 로터스상	한일관계
24	15호(가을)	1978	나카이 마리에	김지하에게 있어 민중	민중, 민주주의
25	17호(봄)	1979	쓰부라야 신고	김지하에 관한 노트	통일, 민중
26	19호(가을)	1979	김학현	빛은 옥중에서, 김지하의 사상	통일, 민중, 문학
27	19호(가을)	1979	백낙청	분단시대의 문학사상	문학, 통일
28	21호(봄)	1980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사회, 통일
29	25호(봄)	1981	김학현	민족문학에 대한 비망록	민주주의, 문학
30	26호(여름)	1981	와타 하루키	민주통일의 길	통일

『삼천리』의 성격상, 한·일 양국의 관계를 재조명 하는 것은 잡지의 가장 큰 역할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삼천리』는 끊임없이 한국의 새로운 소식에 목말라 하였으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던 시기, 『삼천리』가 익명의 K·I라는 필자를 두고 보고서 형식으로 서울의 분위기를 전해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보고서 형식의 글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 박정희정권과 일본 정부의 다양한 결탁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민정이양, 3선개헌, 유신 등을 통해 약 18년 간이나 지속된 박정희정권은 민주주의를 극히 제한한 군사독재정권이었으나 경제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래서 박정희정권에 대해 경제를 발전시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공적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1997년 말, 우리 경제는 결국 IMF관리체제로 들어섰고 이것은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그 직접적 원인인긴 하지만, 박정희정권 아래서 본격적으로 조성된 정경유착·관치금융·재벌독점체제 등 비민주적인 경제체제가 그 근본적 원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¹⁸⁾ 특히 일본과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결탁은 재일 한인들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였다¹⁹⁾. 실제로 『삼천리』에는 『朝日新聞』에 보냈던 借款供與와 投·融資에 관한 재일 한국인의 투서가 실렸는데²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그 돈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죄를 덮어쓰고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슬픔과 분노로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이 극악무도한 박정희 독재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일본정부-일본국민인 여러분들이 내 그 돈이 한국민을 죽이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 일본 국민 여러분, 한국민을 죽이지 말아 주세요.

18)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창비, 2005) 311쪽 참조

19)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비리, 결탁은 각 정부의 이익관계상 특히 심한 것이었다. 박정희정권은 외자유치를 위하여 일본의 어떤 조건도 다 받아들여야 하였고, 일본은 그 즈음 심각해지기 시작한 일본 국내의 임금인상,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별다른 제재조건이 없는 한국에 제2의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자국의 실리를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20) 『삼천리』 1977. 여름호. 통권10호. 요시토메 로쥬, 「일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 대해 구라즈카 다이라는 “실로 일·한 양국정부의 관계는 추한 상호의존의 관계이다. 이런 식의 관계가 존재하는 한, 우리들은 화내고 동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국국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없다. 즉, 박정권의 흉폭한 파쇼적 탄압에 대한 저항의 행동을 함께 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對 한국정책을 규탄하여 이 부끄러운 연대에 맞선 진실한 민주주의연대를 확립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식민지 지배와 재일조선인 차별에 이어 깊어가는 죄의식 속에는 경제침략의 위험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해졌으니 이를 우리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공동화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²¹⁾라고 하며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를 규탄하였고, 김지하는 “일본인은 일본의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민주주의를 결연히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한국 민중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라고 간단히 정리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바른 것인가를 묻는 그의 이러한 모습은 미·소·일·중 등의 대국에 대한 당당한 민족자결권의 요구²²⁾로 이어졌고, 이것은 한·일 정부 합작의 비뚤어진 관계를 바로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되었을 것이다. 『삼천리』가 이처럼 정치적 위선에 대항하여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시인 김지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삼천리』가 김지하 담론에 비중을 두었던 이유는 그가 한국 민중의 힘을 최대로 끌어낸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지하를 논할 때, 무엇보다 먼저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민중’이었고, 『삼천리』의 글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카이 마리에의 「김지하에게 있어서의 민중」이라는 글²³⁾을 보면, “조선의 긴 역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까지 포함해,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 시점에서 민주화투쟁을 시작한 김지하의 말²⁴⁾에는 어떠한 오만함도 느껴지지 않을

21) T·K生,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이와나미신서, 2003) 232~233

22) 김지하는 조선반도의 분단을 고정화시키고 있는 미, 소, 일 등의 대국의 예고이즘에 대해 민족자결권을 반환하라고 실현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한 가장 극적인 시인이다. 그는 민족자결권이 인권과 마찬가지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천권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 천권이라고 하는 정의의 회복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3) 1978년 『삼천리』 가을호(통권15호), 나카이 마리에, 「김지하에게 있어서의 민중」

24) 1968, 69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전공투운동 - 말하자면 신좌익의 운동에 대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중의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투쟁의 思念을 모색하는 자의 고뇌가 묻어나오는 듯 했다. 민중이 없는 운동은 참다운 개혁에 이어지지 않음을 김지하는 간파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며 김지하에게 있어서 민중은 사상의 기본임을 주지하고 있다. 사실, 김지하가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이처럼 강해진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했지만, 시대와 사람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암울한 시대일수록 시인은 더욱 빛이 난다. 시인은 압제와 핍박 속에서 사상과 민중의 삶을 지켜내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지하는 한국의 민중을 찾아내어 끈질긴 생명력과 삶에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시에 민중의 힘이라는 상징성을 불어넣었다고 할 것이다.

김지하는 '양심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민중관을 밝혔다.

나의 사상은 민중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신뢰 속에서 싹튼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그 일원, 즉 억압받는 민중으로 자라면서 억압자가 사회에 고착화시킨 민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체험한 민중은 그렇지 않았다. 민중은 정직했으며, 근면했으며, 바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풍부한 하늘의 지혜를 갖추고 있었으며,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위대한 힘과 강인한 의지를 갖추고 있고, 넘칠 정도로 이웃에 대해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발견한 민중은 자긍심과 지칠 줄 모르는 힘을 내부에 간직한 사람들의 무리였다.²⁵⁾

김지하의 민중관은 그때까지 일본의 마스크에서 다루었던 한국 민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일본의 마스크는 한국 민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룬 해설이나 연구, 보도, 평론에 편파적이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민중은 늘 당하기만 하는 존재, 억눌리고 깔려서 그저 겨우 견디어 낼 뿐인 가련한 존재라는 인상을 주었²⁶⁾기에 재일 한인 사회로서는 김지하의 민중관을 받아들임으로써 강한 한국의 민중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김지하는 “근원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사상성이 부족하다. 곧 지나갈 폭풍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5) 1977년 『삼천리』 여름호(통권 10호), 강재언, 「김지하의 사상을 생각한다.」

26) 아사오 다다오, 『김지하의 세계』, (아오야마사, 1977) 187쪽

끝으로 『삼천리』가 김지하 담론을 통해 얻고자 한 것 중 가장 큰 효과는 김지하가 가지고 있는 「조국통일」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제일 한인 사회가 조국통일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뿐 더러, 김지하가 내세운 한국 민주화 운동의 3대 테제 역시 「민주, 민족, 민생」이었기에 그들의 생각은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여기서 조금 길기는 하지만, 김지하의 「통일론」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제3, 민족통일은 우리민족과 우리 세대에 남겨진 절대과제이며, 지상명령입니다. 나는 통일을 단순한 명분론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론으로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문제라는 하나 때문에 이 과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면 그것을 민족반역행위라고 나는 봅니다.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은 분단고정과 분단영구화를 획책하고 있는 기존 독재권력과 해외의 신식민주주의자 세력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 민족전체가 싸워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북의 기성독재권력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한없는 적대적 감정을 획책하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민중의 요구와 민중의 인간으로서의 요구를 묵살하고 억압한 채, 모든 사회경제체제를 분열과 적대와 그를 위한 군비경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²⁷⁾

김지하의 ‘통일’이 독재권력과 민중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독재권력이 바라는 것은 적대와 분열, 모순이며 민중은 이에 대해 본질적으로 통일을 바라고 <통일=親交=자유=민주화>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등식은 ‘통일과 카톨릭’의 연결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즉, ‘통일이란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사랑이며, 친교이며, 통일²⁸⁾’이라는 것이다. 제일 문예평론가 김학현은 김지하가 말하는 통일투쟁이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아름다운 환상이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이 환상이 민족의 역사적 恨에 기초하고 있기에 한층 리얼리티를 띠고 있는²⁹⁾것이라 설명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김지하의 통일론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27) 김지하의 최종진술(1976년 12월23일)을 『삼천리』 1981년 여름호, 제26권 와다 하루키 편집, 「민주통일의 길」에서 재인용. 96쪽

28) 『삼천리』, 1979년 봄호, 제17권, 쓰부라야 신고, 「김지하에 관한 노트 - 『고행·옥중에서의 나의 투쟁』을 읽고」

29) 『삼천리』, 1979년 가을호, 19권, 김학현, 「빛은 獄中에서·김지하의 사상」

권과 정권의 갈등이 해소되고, 정권과 민중의 힘이 합해져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가능한 '통일'인 것이다. 재일 한인 사회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민단과 총련으로 나뉘어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조차 '하나된 조국'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던 재일 한인 사회는 어느 한쪽의 노력이나 희생으로만 치우쳐진 통일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삼천리』의 독자적인 중립노선이 김지하의 통일론에 얹혀 힘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읽혀진다.

V. 맺음말

『삼천리』에서 김지하 담론이 가지는 의미는 좁은 듯 하면서도 넓다. 잡지가 지향하는 '무정치성의 정치성'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삼천리』는 김지하의 정치가가 아닌 무명의 시인, 즉 문화인이라는 위치를 좋아했을 것이지만 그가 거두어들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적이었다. 김지하 관련 담론이 재일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미 많은 부분의 예측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김지하가 가진 민주주의와 독재정권에 대한 생각은 재일 한인 사회가 바라는 조국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려졌던 것이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한 결탁은 일본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국 민중의 삶을 파괴화시켰다. 한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그 사실을 지켜보던 재일 한인이라는 또 다른 민중들도 분기탱천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삼천리』가 많은 지면을 한국의 정세와 상황을 살피는 것에 할애한 것도 이러한 재일 민중들의 요구에 발맞춘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지하의 선진국(미, 소, 일, 중)에 대한 당당한 자세는 재일 민중들에게 큰 힘이 됨과 동시에 조국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일본 언론의 한국을 다루는 수박 겉핥기식의 기사로 억압받는 한국 민중의 모습만이 일본 국,내외에 알려지던 상황에서 거꾸로 풀뿌리 같은 한국 민중의 모습을 소개한다는 것은 재일 민중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다. 재일 민중으로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 민중의 모습을 제대로 일본 땅에

이해시킨다는 측면과 더불어 형제들의 삶을 한 격 더 높일 수 있다는 스스로의 기쁨도 존재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독재권력의 체제유지 때문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조국의 통일은 재일 민중의 가슴에도 아프게 자리했고 재일 한인이라는 마이너리티 사회에서 또 양분되어 서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임에 틀림 없다. 김지하의 통일론은 현실성이 결여되기는 하였지만 양쪽의 체제를 모두 비판하면서 민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기에 재일 민중은 그것을 분단시대의 청사진으로 받아들여 『삼천리』의 지면을 할애했다.

『삼천리』는 재일 민중에게 특별한 잡지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재일 한인 사회가 한국의 정치현실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정치와 문화적인 면을 적절히 섞어 조국에 대한 재일 민중의 생각을 전달코자 하였다. 김지하라는 창을 통해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삼천리』와 재일 민중이 조국의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문화적’인 길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 삼천리, 김지하, 문화적 참여, 정치성, 독재정권, 민주주의, 통일, 민중, 재일 한인, 민주화 운동

참고문헌

1. 자료

『三千里』

2. 참고논저

T·K 生, 『한국에서의 통신』, 이와나미신서, 2003

김시중, 『「在日」의 틈새에서』, 평범사, 2001

유시춘외, 『우리 강물이 되어1』, 경향신문사, 2005

강덕상, 정진성 외 공저,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 창비, 2005

이진희, 강재언, 『한일교류사』, 학교재, 1998

이진희, 『해협』, 삼인, 2003

김지하, 『오적』, 답게, 2001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2005

<http://www.naver.com> 지식인 검색

<Abstract>

Political Implication of Kim, Ji-ha
Discussion in the Magazines Published by
Korean Public in Japan
- Centering around the 『Samcheonri』

An, Jeong-Hwa

The significance implied in Kim, Ji-Ha's discourse in 『Samcheonri』 looks narrow but is wide. It is because the 'political nature of non-political nature' pursued by the magazine was melted in there. 『Samcheonri』 should have liked the position of Kim, Ji-Ha as an obscure poet, i. e. a man of culture but the result he would yield should have been known to be sufficiently political. Most part of the effect of the Kim, Ji-Ha's discourse on the commun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should have been forecastable. Kim, Ji-Ha's idea on democracy and the dictatorship had been displayed as a desirable shape of home country hoped by the commun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lso Kim, Ji-Ha's grand attitude against advanced countries (U. S. A., Russia and Japan) has been greatly encouraging the Korean public in Japan and also gave generated the recognition that the future of home country was not so dark. In addition, in the situation that only the stories of oppressed Korean public had been introduced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by the superficial articles of Japanese press, introducing the aspect of Korean public that was like grass-roots was an important thing to the Korean public in Japan. Together with the aspect that it would provide proper perception on Korean public to make the life of Korean public in Japan positive, it is imaginable there should have been the pleasure of

themselves that it might enhance the grade of their life by one stair. Although Kim, Ji-Ha's theory on unification was deficient of reality, it suggested the way of Korean public to go forward criticizing both of the systems thus the Korean public in Japan accommodated it as the blueprint for the future in the times of separation and spared the space of 『Samcheonri』.

『Samcheonri』 has fulfilled the role as a special magazine for the Korean public in Japan. It gave a deep consideration on how the community of Korean public in Japan would accommodate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and the movement of democratization and tried to deliver the opinion of Korean public in Japan on home country by an appropriate mixture of politics and culture. The expression of their will on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through the window termed Kim, Ji-Ha was one of the few 'cultural' way of 『Samcheonri』 and Korean public in Japan to participate in the future of home country.

Key Words : Samcheonri, Kim, Ji-Ha, participate in cultural, political nature, dictatorship, democracy, unification, public, Korean residents in Japan, democratization